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5일 월요일 음 10월 29일 (6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밤부터는 동부와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next 5 day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weekly weather forecast for Jeju.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like food safety and allergies.

월드뉴스

아베, 韓 지소미아 정지에 “양보 안했다”

‘외교전서 승리’ 국내 선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자국 내 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소미아 효력 유지’ 언급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정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양보했고 일본은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조 상 운

정치부국장

‘전략공천, 컷오프’ 낯설지 않은 단 어들이 난무하는 계절이 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일촉즉발의 ‘내부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유지(46.9%)’ 여론이 다시 뽑겠다는 ‘교체(42.2%)’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했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도 치열한 물밑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3개 선거구를 석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고토회복을 노리는 보수야당 등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리모델링)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WIDEX hearing aids (와이덱스 보청기) with benefit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WONCAR car rental (전세 렌터카) with term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 with services and contact info.